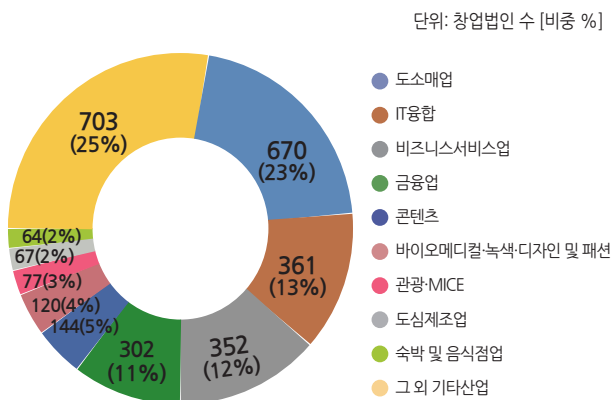


산업별 창업 동향

I 산업별 창업현황

- 2018년 6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,860개
-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670개, IT융합 361개, 비즈니스서비스업 352개, 금융업 302개, 콘텐츠 144개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 120개, 관광·MICE 77개, 도심제조업 67개, 숙박 및 음식점업 64개, 그 외 기타산업 703개가 창업
- 그 외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(215개), 제조업(167개), 건설업(104개) 등이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 차지

[그림 1] 2018년 6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

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)

-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17.2로 (전년동월에 비해) 1.7% 감소
- 산업별로 봤을 때 관광·MICE, 숙박 및 음식점업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의 세 개 산업은 5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
- 그러나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과 금융업이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들어 감소로 전환되며 전체 지수를 감소로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
- 관광·MICE(54.0%)가 급증했고, 숙박 및 음식점업(25.5%)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(17.6%), IT융합(13.5%), 도소매업(8.1%), 콘텐츠(5.9%)도 호조
- 반면 도심제조업(-34.3%), 그 외 기타산업(-11.5%), 비즈

니스서비스업(-11.3%), 금융업(-7.6%)은 감소

- 관광·MICE 산업은 국내 여행사업, 일반 및 해외 여행사업,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주를 이루는데 그 중 국내 여행사업에서 법인 창업이 대폭 증가
-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등 모든 구성 업종이 감소
- 금융업은 그 외 기타 금융업이 전년동월에 비해 급감하면서 감소로 반전
- 그 외 기타 금융업은 기금 운영업, 금융지주회사,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을 포함
- 도심제조업은 2~5월 감소세가 지속되다 6월 들어 가장 큰 감소율(-34.3%)을 기록
- 서울시 도심제조업은 의류봉제제조업, 기계, 인쇄, 귀금속으로 구성
- 의류봉제제조업이 전체의 72%를 차지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작은 비중 차지
- 그 외 기타산업은 4~5월 증가하다가 6월 들어 감소(-11.5%)로 돌아섬
- 건설업(-22%)과 제조업(-21%)이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

[표 1] 2018년 6월 산업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